

대학생의 애착유형, 지각된 사회적지지,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김 시 형 권 은 비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한국의 대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불안애착, 회피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PTG)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반추(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이 트라우마 사건인지 생활스트레스 사건인지에 따라 경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침습적 반추를 지나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된 가설적 연구모형 및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를 지나는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을 각각 설정했다. 연구결과 첫째,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침습적 반추의 단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불안애착이 침습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생활스트레스 사건 집단이 트라우마 사건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트라우마 사건 집단이 생활스트레스 사건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 애착유형, 반추(침습적, 의도적),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40-1984, E-mail: dhlawrence05@gmail.com

최근 세월호 사건부터 포항지진 그리고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심리적 지원으로 상담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트라우마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후유증 또는 상처를 의미하며,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 성폭력, 자연 재해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병리적 증상을 뜻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번 이상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다고 한다(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안현의, 2005; ; Copeland, Keeler, Angold, & Costello, 2007; 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Frazier et al., 2009).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경험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한다(Chemtob & Carson, 2004). PTSD의 특징적 증상으로는 사건과 관련된 장소, 사람, 기억, 사고 등을 회피하거나 정서적 감각의 마비 혹은 자극의 과각성 등이 있다(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PTSD 증상은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나타나지만, 심리적 문제, 불능화, 삶의 기능의 손상과 연관될 수 있으며 다른 심리적 장애들을 동반한다(Foa, Keane, Friedman, & Cohen, 2008). PTSD로 고통 받는 이들은 트라우마를 재경험 하거나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면 장애, 과민성 등의 다른 질병들을 경험하며 우울증 및 알코올, 약물 남용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Ullman, Relyea, Peter-Hagene,

& Vasquez, 2013).

반면, 이와 같이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이들 중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며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외상 후 성장(PTG: Post Traumatic Growth)’이라 하는데, Calhoun과 Tedeschi(2001)는 외상 후 성장을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에 따른 대처 결과로 경험하게 된 긍정적인 심리 변화라고 설명했다. Maercker와 Zoellner(2004)는 삶의 위기를 경험한 이후 기존에 갖고 있던 심리적 기능과 적응 수준, 삶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이루고 이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긍정적 심리 변화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닌, 관점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상태를 넘어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한다(Tedeschi & Calhoun, 2004).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 모델(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을 통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는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개인적 특성부터 트라우마 사건 이후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까지 구조적 관련성을 여러 변인들을 통해 제시한다. 외상 후 성장 모델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개인은 기존의 목표와 신념 체계, 내적 도식이 위협을 받게 되어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형성된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도식만으로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 가정이 부딪히며 외상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해 외상 후 인지가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추

(rumination)' 라는 요인이 중요한 역할로써 활용된다(Janoff-Bulman, 2010). 반추는 사건관련 반추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기며 떠올리는 침습적 반추와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자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적 반추로 구분된다(이동훈 외, 2017).

침습적 반추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의식에 침투하는 사고이다. 이는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을 지속시켜 PTSD 증상을 유발하는 예측변인으로 제시된다(Calhoun, Cann, Tedeschi, & McMillan, 2000; Tedeschi & Calhoun, 2004). 침습적 반추는 PTSD의 재경험 증상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구조가 동일하지 않으며 침습적 반추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사고라면, PTSD 증상의 재경험은 사건 당시의 기억과 경험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Blackburn & Owens, 2016). 반면, 의도적 반추는 트라우마 사건을 이해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목적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을 의미한다(Michael & Snyder, 2005). 이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신선영, 정남운, 2012; 이현수, 2008; Calhoun et al, 2000; Cann, Calhoun, Tedeschi, & Solomon, 2010). 트라우마를 겪는 다수의 사람들은 사건 이후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Nolen-Hoeksema, 2000), 침습적 반추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숙고하는 사고로 전환되며 의도적 반추를 거치게 된다(Michael & Snyder, 2005).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사건 이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한 개인은 적응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Tedeschi &

Calhoun, 2004). Tedeschi와 Calhoun(2004)은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경험 이전(pretrauma)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이 트라우마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정된 외상 후 성장모델에서는 애착유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반추와 재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McElheran et al., 2012), 외상 이전의 신념체계, 심리적 안녕, 애착유형, 기질, 정서적 반응 등의 모든 요소들은 외상 사건 노출 후, 사건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 하며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Kilmer, 2006). 본 연구에서는, PTSD와 PTG를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진 애착유형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애착유형은 PTG 모델의 개인적자원의 대표적인 변인이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원의 대표적인 변인이다(Calhoun, Cann, & Tedeschi, 2010).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며 과도기적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대학생 시기에 애착유형과 사회적 지지는 생활적응(김광은, 2004; 김종운, 김지현, 2013;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및 PTSD와 PTG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정, 정규석, 2016;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윤명숙, 김남희, 2013), 이 두 변인이 PTSD 증상과 PTG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 때문인지 밝히고자 한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양육자의 근접성을 통해 안전과 지원을 보장받고자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Bowlby, 1982) 이러한 모습은 평생에 걸쳐서 관찰 된다(Ainsworth, 1979; Granqvist, Mikulincer, Gewirtz, & Shaver, 2012). 특히, 성인이 지지 체계를 추구하는 패턴은 애착경험과 애착전략에 의존한 결과로 내면화되어 개인의

애착유형과 연합되고, 그로 인해 과생되는 관계에서의 기대, 정서, 행동의 체계적 패턴으로 나타난다(Mikulincer & Shaver, 2003). 또한 이러한 패턴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는데, 불안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근접성을 추구하며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걱정을 자주하고, 회피애착은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특징을 통해 과도한 자기 의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allagher et al., 2016). 이렇듯 개인의 애착 유형은 트라우마 경험과 같은 위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인식해야 할지 적용하는 작동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Besser & Neria, 2010, 2012; Elwood & Williams, 2007). 선행연구를 보면 안정 애착의 긍정적 효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트라우마 환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Mikulincer, Shaver, & Horesh, 2006),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가진 개인은 정신 건강 및 조정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이 발견됐다(Besser & Neria, 2010, 2012; Elwood & Williams, 2007; Mikulincer, Horesh, Eilati, & Kotler, 1999).

불안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애착대상과의 짧은 기간의 분리에도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반응물질인 코티솔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amond, Hicks, & Otter-Henderson, 2008). 또한, 분리 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우울 반응 및 침습적 반추와 PTSD 증상을 증가시키는 반면(Gallagher et al., 2016; Shaver & Mikulincer, 2002), 의도적 반추와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하진의, 2014). 회피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거리유지 및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으로 애착에 대한 욕구 부인과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며(Shaver & Mikulincer, 2002), 불안정애착과 이별 후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이 의도

적 반추를 덜 하므로 이별 후 성장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다(Marshall, Bejanyan, & Ferenczi, 2013). 회피애착 유형과 PTSD 증상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Gallagher et al., 2016). 회피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연구는 적은 실정인데, 다소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서는 전쟁 포로의 아내들 중 높은 수준의 회피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Dekel,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사별을 경험한 성인 형제 중 회피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외상 후 성장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Cohen, & Katz, 2015), 회피애착이 외상 후 성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도 나타났다(Yu, He, Xu, Wang, & Prigerson, 2016).

PTSD 증상과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 사건을 입은 개인이 자기 개방을 했을 때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정서적 고통이 감소되고 침습적 반추가 조절되며 의도적인 반추로 넘어가 내적 도식이 변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지지받은 사람에 의해 평가된 지지라는 점이 구별되며, 상호작용유형 또는 관계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평가된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Cohen과 Syme(198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응적 결과, 대처 의 효능성, 신체적 안녕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유희정, 2015; Seonol-Durak & Ayvasik, 2010; Sheik, 2003;

Weiss, 2004) 위기상황 또는 어떠한 자극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도와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hoits, 1996). 관계 상실의 외상 경험을 겪은 대학생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를 정적으로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박선정, 2015), 다른 연구에서도 외상사건을 겪은 성인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영, 정남운, 2012).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수록 반추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가 어렵고(Nelson Goff et al.,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반추와 PTSD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며 PTSD 증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 또한 완화시킨다(Carpenter, Fowler, Maxwell, & Andersen, 2010; Zhou, Wu, An, & Chen, 2014).

외상 사건의 유형도 외상성 사건과 생활스트레스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상성 사건은 DSM-5 진단기준 A에 포함되는 직접적인 경험들로,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성폭력, 전투원 또는 시민으로 전쟁에 노출되거나, 납치, 인질, 테러 공격, 고문, 전쟁 포로로서 감금, 자연적이거나 인간이 일으킨 재앙, 심각한 차량 사고를 포함한다(APA, 2013). 그리고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부상, 비정상적인 죽음, 폭력적인 폭행에 의한 타인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타인의 폭력적인 폭행에 의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가정 폭력, 사고, 전쟁 혹은 재앙, 또는 자녀에 대한 의학적인 참사 등의 사건에 대한 목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에게 일어난 경험으로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인 경험 등의 사건에 대한 학습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도 포함된다(APA,

2013). 반면, 생활 스트레스 사건은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을 가하고, 위협을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울 때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며(전경구, 김교현, 1991), 보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사건들을 위주로 측정한다. 생활스트레스 사건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또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별, 모욕, 직장 내 문제, 가족관계 문제, 성희롱, 재정 및 경제적 지위의 변동,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위협 또는 끔찍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Gold, Marx, Soler-Baillo, & Sloan, 2005; Goodman, Corcoran, Turner, Yuan, & Green, 1998; Mol et al., 2005; Scott, & Stradling, 1994)

PTSD 증상은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Kelley et al., 2009), 어떤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PTSD 증상을 더 유발하는 것을 보인다(Briere & Scott, 2014). 상대적으로 높은 PTSD 수준을 유발하는 외상사건에 대한 파악은 외상사건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시된다(김지윤, 이동훈, 김시형, 2018). DSM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외상사건이 PTSD 증상과 유의하게 상관이 있듯, DSM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대인관계 문제 및 학업 등의 생활스트레스사건도 DSM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사건을 경험한 만큼 높은 PTSD 증상을 초래하며(Mol et al., 2005), 오히려 DSM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외상사건 보다 더 많은 PTSD 증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Long et al., 2008; Robinson, & Larson, 2010; Willard, Long, & Phipps, 2016). 특히, 김지윤 등(2018)의 연구를 살펴보면, 진단적 외상 사건이 아닌 높은 수준의 PTSD 증상

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스트레스 사건들(예, ‘가까운 사람의 예상된 죽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법적 구속 또는 수감’등)을 통해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상사건과 생활스트레스사건 유형 구분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사건의 유형이 외상성 사건인지 생활스트레스 사건인지에 따라 애착과 반추, PTSD 증상,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관계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최종 연구모형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한다. 경쟁모형은 불안애착, 회피애착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 PTSD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거쳐서 외상 후 성장, PTSD 증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다중매개모형이며,

연구모형은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과 PTSD 증상에 영향을 주는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이 외상성 사건인지 생활스트레스 사건인지에 따라 불안애착, 회피애착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및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매개하는 관계구조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의 유형에 따라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가운데, 대학생 대상의 트라우마 상담 접근 방향 모색에 실증적 결과를 확인하여 추후 지원 및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애착유형과 트라우마사건 유형에 따른 반추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애착 유형과 트라우마사건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을 제시하며, 외상사건으로 인한 반추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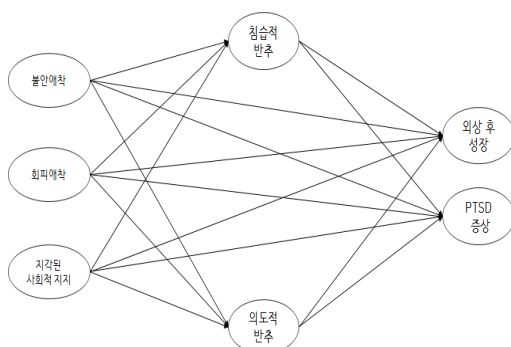


그림 1. 경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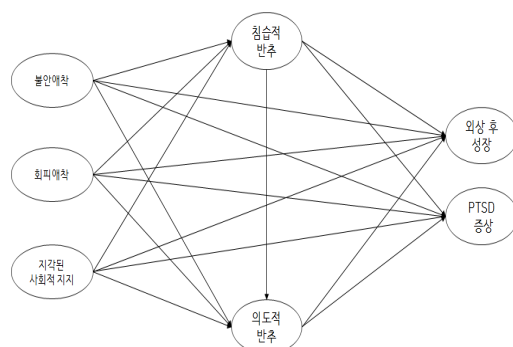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연구문제1. 불안애착, 회피애착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는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불안애착, 회피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구조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남, 부산, 충청, 진라, 제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경험 질문지와 심리적도가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해 오프라인 지필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이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지는 1620부를 배포해 최종 1309부가 회수되었고, 설문지당 작성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중 설문에 절반 이상 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7부와 대학원생이 작성한 68부를 제외해 데이터 클리닝 후 사용가능한 설문지는 1141부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없다고 보고한 413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는 72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235명(32.3%), 여성이 492명(67.6%),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명(0.1%)이었으며, 나이는 18세부터 29세까지 평균 21.15세였다. 현재 가장 고통스

러운 사건이 트라우마 사건으로 DSM-IV의 진단준거 A에 해당되는 사건(전염성 재난, 자연재난, 교통사고, 사고 및 상해, 폭행강도, 성폭행 및 성추행, 본인의 심각한 질병, 가까운 이의 사망, 친한 친구의 사망)을 보고한 연구 참여자는 272명(37.4%)이었으며, 생활스트레스 사건(가족의 질병,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해고나 실직, 적응의 어려움, 실패경험, 미디어 노출로 인한 간접외상, 법적구속)은 456명(62.6%)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였고, 연구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했다.

측정도구

트라우마 경험 질문지

외상사건경험 질문지는 송승훈(2007)이 개발해 신선영과 정남운(2012)이 수정 및 보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2012a, 2012b)이 제시한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유형과 Zimbardo와 Weber(1997)가 제시한 심리적 충격강도가 큰 주요생활사건을 참조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주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을 조사해 범주화 한 이후 해당 유형을 전문가들의 질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 합의과정은 상담심리 전공 교수 4인이 10여 차례의 대면회의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질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로 최종 19여개의 외상사건 범주를 확정하였고 외상사건의 범주화 과정은 국내외 외상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Murphy와 Archer(1996)연구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categorization method)을 사용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확정된 19개의 외상사건 범주는 2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DSM-IV의 진단준거 A에 해당되는 트라우마 사건과 그 외의 생활스트레스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트라우마 사건에는 사고나 상해, 교통사고, 전염성 재난, 자연 재난,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의 사망, 친구의 사망, 신체적 질병이 포함되었으며, 생활스트레스 사건에는 가족의 질병, 가족과의 갈등,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주변 대인관계 문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충격, 경제적 상황 변화, 본인 또는 가족의 실직, 적응 어려움, 법적 구속, 학업실패가 포함되었다. 19개의 외상사건 범주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시,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외상사건 범주목록 중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성인에착(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성인에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Brennan 등(2000)이 개발하여 김성현(2004)이 국내 타당화한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불안애착 18문항(예, '다른 이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과 회피애착 18문항(예, '다른 이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인 2개의 독립적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애착불안은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기에 대한 걱정을, 애착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에착의 불안, 회피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 하위영역별 .89, .85로 나타났으며, 양수진, 이정운(2012)의 연구에서는 각각 .91과 .92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이 .89, 회피애착이 .90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가족, 친구 및 이웃 등을 통해 받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이 개발하여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MSPS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는 친구지지 4문항(예, '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다'), 가족지지 4문항(예, '가족은 나를 돕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썼다'), 주요타인지지 4문항('내가 필요할 때 옆에 함께 있어준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총 3개의 하위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Zimet 등(1988)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가 .88로 나타났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역시 .89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가족지지는 .93, 친구지지는 .93, 주요타인지지는 .93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트라우마 사건 관련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해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ERRI)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의도적 반추 10문항(예: '나는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가 그 경험 이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및 침습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과 관련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총 2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고,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함을 나타낸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Cronbach's α 는 동일하게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의 Cronbach's α 는 .95, 의도적 반추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ES-R-K)

트라우마 사건 경험 이후에 사건에 대한 적응 정도 및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Wilner, & Alvarez(1979)이 개발하여 Weiss와 Marmar(1997)가 개정한 IES-R을, 은헌정 등(2005)이 타당화한 것으로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ES-R-K)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은 과각성 6문항(예: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침습 8문항(예: ‘그 사건을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및 회피 8문항(예: ‘내가 주위를 경계한다고 느꼈다.’) 총 3개의 하위로 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은헌정 등(2005)의 연구에서 과각성, 회피 및 침습의 Cronbach's α 는 각각 .87, .70, .6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과각성이 .86, 회피는 .84, 침습은 .89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

인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자기지각 변화 5문항(예: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대인관계 깊이 증가 6문항(예: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새로운 가능성 발견 3문항(예: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종교적·영적 관심 증가 2문항(예: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총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고, 6점 Likert 척도로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트라우마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AMOS 21.0과 SPSS 21.0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에 대한 정규성 및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쟁모형과 연구모형 간 $\Delta\chi^2$ 분석을 통해 최종 연구모형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Hu와 Bentler(1999) 및 MacCallum, Browne, Sugawara(1986)가 제안한 가

이드라인에 따라 χ^2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CFI, SRMR, RMSEA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를 토대로 유의한 매개경로를 설정하고, Cheung(2007)이 제시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시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여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현재 고통 받는 사건에 따라 경로에서 효과크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yrne(2004)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 구조동일성을 통해 차이가 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인 불안애착, 회피

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불안애착, 회피애착,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는 단일변인이기에 문항꾸러미(item-parcel)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시에 따라 개수는 3개로 만들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꾸러미가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도록 생성하였다. 또한 Kline(2015)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왜도의 절대 값이 3, 첨도의 절대 값이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는데 정규성과 경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와 연구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불안애착	-													
2.회피애착	.335**	-												
3.가족지지	-.206**	-.296**	-											
4.친구지지	-.175**	-.432**	.518**	-										
5.주요타인지지	-.178**	-.366**	.590**	.775**	-									
6.침습적 반추	.354**	.199**	-.181**	-0.06	-.079*	-								
7.의도적 반추	.178**	-0.02	-0.04	0.06	0.06	.480**	-							
8.과각성	.338**	.236**	-.243**	-.152**	-.131**	.613**	.304**	-						
9.회피	.287**	.210**	-.195**	-.136**	-.090*	.551**	.324**	.683**	-					
10.침습	.378**	.237**	-.176**	-.134**	-.100**	.701**	.369**	.796**	.701**	-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계속)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1. 자기지각의 변화														
12. 대인관계의 깊이증가	-.123**													
13. 새로운 가능성 발견	-0.01	-.184**												
14. 영적, 종교적 깊이증가	0.04	-0.03												
M	48.14	49.51	9.65	13.23	4.66	5.01	5.07	0.76	1.12	1.07	2.87	2.75	2.88	1.70
SD	11.07	10.92	7.42	8.04	1.63	1.50	1.45	0.83	0.85	0.81	1.19	1.16	1.17	1.46
왜도	0.02	0.13	0.45	0.00	-0.52	-0.79	-0.73	1.18	0.60	0.72	-0.56	-0.46	-0.53	0.51
첨도	-0.31	-0.24	-0.57	-0.86	-0.44	0.15	0.07	0.84	-0.37	-0.12	-0.33	-0.40	-0.12	-0.81

주. * $p < .05$. ** $p < .0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FI는 .95 이상이면 좋은 편이고 SRMR이 .08 이하이면 수용가능하다는 기준과(Hu & Bentler, 1999) RMSEA가 .08 이하면 수용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MacCallum et al., 1996) 적합도를 확인해보았을 때 모든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43~.94의 범위를 가져 요인부하량이 최소 .40은 넘어야 한다는 이순목(2000)이 제안한 기준을 넘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2, 3과 같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불안 애착, 회피애착과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해당 경로를 제약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내재된 관계이기 때문에 $\Delta\chi^2$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χ^2 차이가($\Delta\chi^2=152.161$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을 최종 연구모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측정모형	727.338	188	.000	.063(.058-.068)	.954	.934	.0523

표 3.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beta(B)$	S.E.	<i>t</i>
불안애착			
불안애착1	.851(1)		
불안애착2	.92(1.24)	0.041	30.194***
불안애착3	.817(.882)	0.033	26.61***
회피애착			
회피애착1	.827(1)		
회피애착2	.902(1.188)	0.04	29.428***
회피애착3	.895(1.203)	0.041	29.214***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638(1)		
친구지지	.857(1.237)	0.068	18.265***
주요타인지지	.902(1.259)	0.069	18.35***
침습적 반추			
침습적1	.91(1)		
침습적2	.944(1.01)	0.023	43.289***
침습적3	.901(.976)	0.025	38.712***
의도적 반추			
의도적1	.868(1)		
의도적2	.933(1.093)	0.032	34.057***
의도적3	.847(.905)	0.03	29.802***
PTSD 증상			
과각성	.86(1)		
회피	.766(.914)	0.037	24.656***
침습	.927(1.057)	0.033	32.29***
외상 후 성장			
자기지각의 변화	.925(1)		
대인관계의 깊이증가	.804(.852)	0.031	27.238***
새로운 가능성 발견	.809(.859)	0.031	27.506***
영적, 종교적 깊이증가	.429(.571)	0.048	11.816***

주. *** $p < .001$.

형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인 불안애착이 PTSD 증상($\beta = .164$, $p < .001$), 침습적 반추($\beta = .348$, $p < .001$)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외상 후 성

표 4. 연구모형 선택을 위한 $\Delta\chi^2$ 검증

	χ^2	df	p	RMSEA	CFI	SRMR	TLI	$\Delta\chi^2$ □
경쟁모형	964.604	211	.000	.070(.065-.074)	.939	.0971	.927	152.161***
연구모형	812.442	210	.000	.062(.058-.067)	.951	.0526	.941	

장($\beta=.007, p>.05$), 의도적 반추($\beta=.057, p>.05$)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애착은 외상 후 성장($\beta=.139, p<.001$)과 침습적 반추($\beta=.139, p<.05$),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beta=-.12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beta=.003,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beta=.244, p<.001$)으로 가는 경로만 유의하였고 PTSD 증상($\beta=-.06, p>.05$), 침습적 반추($\beta=.016, p>.05$), 의도적 반추($\beta=.064, p>.05$)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침습적 반추는 PTSD 증상($\beta=.662, p<.001$), 외상 후 성장($\beta=-.145,$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beta(B)$	S.E.	t
불안애착 → PTSD 증상	.12(1.21)	0.33	3.66***
불안애착 → 외상 후 성장	.01(0.09)	0.54	0.16
회피애착 → PTSD 증상	.05(0.43)	0.28	1.53
회피애착 → 외상 후 성장	-.22(-2.41)	0.47	-5.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 PTSD 증상	-.06(-0.06)	0.03	-1.80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24(0.31)	0.05	5.91***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35(0.50)	0.06	8.34***
회피애착 → 침습적 반추	.10(0.12)	0.05	2.19*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침습적 반추	.02(0.01)	0.01	0.36
불안애착 → 의도적 반추	.06(0.09)	0.07	1.39
회피애착 → 의도적 반추	-.12(-0.16)	0.06	-2.86**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의도적 반추	.06(0.01)	0.01	1.53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66(4.61)	0.28	16.34***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15(-1.34)	0.40	-3.35***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50(0.55)	0.04	12.40***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06(0.41)	0.21	1.93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42(3.52)	0.36	9.89***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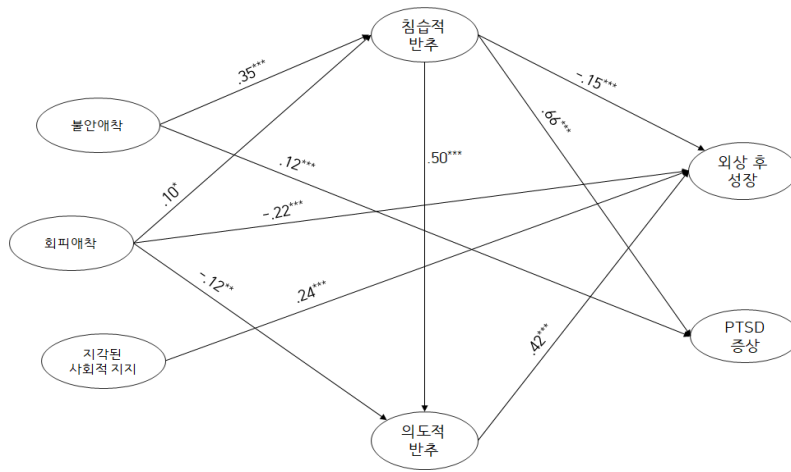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연구모형 경로계수

$p < .001$), 의도적 반추($\beta = .500, p < .001$)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beta = .415, p < .001$)는 유의하였으나 PTSD 증상으로 가는 경로($\beta = .064,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매개경로에 대한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Cheung(2007)이 제시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구하고 Shrout와 Bolger(2002)

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이중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2.30	1.69	2.93
회피애착 →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0.54	0.04	1.05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67	-1.16	-0.28
회피애착 →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16	-0.40	-0.022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96	0.67	1.35
회피애착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0.22	0.024	0.457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본 연구에서 현재 고통 받는 사건의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은 Byrne(2004)가 제안한 것과 같이 두 집단 간 형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형태 동일성과 측정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측정 동일성을 확인한 후 형태와 측정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부분 구조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형태 동일성 검증

형태(요인의 구성)가 같은지 평가하기 위해 형태를 같이하여 무제약 모형을 분석하여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CFI가 .95 보다 크고, SRMR과 RMSEA가 .08이하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형태동일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

트라우마 사건과 생활스트레스 사건 선택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기에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집단 간 측정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 간 차이 검증은 내재된 모형이기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측정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Delta\chi^2=18.205, p=.252$).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분 구조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이 만족되었기에 구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로를 하나씩 제약하여 측정 동일성 모형과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제약 모형($\Delta\chi^2=4.043, p<.05$)과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제약 모형($\Delta\chi^2=8.175, p<.05$)과의

표 7. 형태동일성

	χ^2	df	p	RMSEA	CFI	SRMR	TLI
형태동일성(Traumatic)	897.34	378	.000	.044(.040-.047)	.956	.056	.946
형태동일성(생활스트레스)							

표 8. 측정 동일성

	χ^2	df	p	RMSEA	CFI	SRMR	TLI	$\Delta\chi^2$
형태 동일성	897.34	378	.000	.044(.040-.047)	.956	.056	.946	18.205(.252)
측정 동일성	915.55	393	.000	.043(.039-.046)	.955	.057	.948	

$\Delta\chi^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2개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에 따른 경로 계수와 부분 구조 동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로가 어떤 차이가 존재하

표 9.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 유형에 따른 부분 구조 동일성 검증

	χ^2	df	p	RMSEA	CFI	SRMR	TLI	$\Delta\chi^2$
측정동일성 모형	915.545	.393	.000	.043(.039-.046)	.955	.057	.948	28.864*
완전 구조동일성 모형	944.409	410	.000	.042(.039-.046)	.954	.069	.949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제약 모형	919.588	394	.000	.043(.039-.046)	.955	.060	.947	4.043*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제약 모형	923.720	394	.000	.043(.039-.047)	.955	.061	.947	8.175*

주. * $p < .05$.

표 10.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 유형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beta(B)$		S.E.		t	
	트라우마	생활 스트레스	트라우마	생활 스트레스	트라우마	생활 스트레스
불안애착 → PTSD 증상	.056(.068)	.162(.207)	0.062	0.056	1.089	3.709***
불안애착 → 외상 후 성장	.02(.03)	.004(.009)	0.114	0.11	0.269	0.934
회피애착 → PTSD 증상	.001(.001)	.097(.113)	0.066	0.051	0.019	0.027
회피애착 → 외상 후 성장	-.28(-.47)	-.172(-.318)	0.12	0.101	-3.933***	0.002
지각된 사회적 지지 → PTSD 증상	-.04(-.01)	-.046(-.006)	0.008	0.005	-0.707	0.266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20(.04)	.265(.056)	0.015	0.011	2.894**	13.463***
불안애착 → 침습적 반추	.25(.31)	.407(.518)	0.082	0.068	3.733***	7.667***
회피애착 → 침습적 반추	.14(.16)	.084(.097)	0.088	0.066	1.766	0.141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침습적 반추	.06(.01)	.013(.002)	0.011	0.007	0.815	0.806
불안애착 → 의도적 반추	-.02(-.02)	.108(.15)	0.076	0.08	-0.26	0.06
회피애착 → 의도적 반추	-.09(-.10)	-.163(-.203)	0.079	0.073	-1.287	0.005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의도적 반추	-.01(-.00)	.114(.016)	0.01	0.008	-0.094	0.037
침습적 반추 → PTSD 증상	.74(.73)	.621(.624)	0.066	0.046	11.029***	13.463***
침습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20(-.29)	-.124(-.199)	0.114	0.086	-2.549*	0.02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64(.68)	.407(.442)	0.061	0.058	11.054***	7.637***
의도적 반추 → PTSD 증상	-.03(-.03)	.078(.072)	0.057	0.037	-0.457	0.052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47(.66)	.406(.598)	0.105	0.075	6.313***	7.928***

주. * $p < .05$. ** $p < .01$. *** $p < .001$

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차이가 유의했던 불안애착이 침습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이 외상성 사건 집단($\beta=.245, p<.001$)이 생활스트레스 사건 집단($\beta=.407, p<.001$)보다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로인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지만 외상성 사건 집단($\beta=.546, p<.001$)이 생활스트레스 사건 집단($\beta=.398, p<.001$)보다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회피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모델 이론에 기반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선택한 사건의 유형에 따라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 회피애착,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단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침습적 반추를 하는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PTSD 증상은 더 높아지고 외상 후 성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이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지만 의도적 반추를 거치면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외상성 사건의 여파에 더 많은 고통을 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McElheran et al, 2012)와 불안애착의 경우 침습적 반추양식과 높은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Davis, Shaver, & Vernon, 2003)와 일치했다. 또, 높은 수준의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은 PTSD 증상을 보고할 것이라는 연구(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Calhoun, Cann, & Tedeschi, 2010)와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양귀화, 김종남, 2014). 그리고 외상경험 이후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 효과는 본 연구의 핵심인 Tedeschi와 Calhoun(2006)이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델과 일치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며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양귀화, 김종남, 2014; 하진의, 2013; 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 Thornton & Perez, 2006; Weiss, 2002).

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침습적 반추를 줄여 PTSD 증상을 낮추는 개

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기억이나 감각,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감소시켜 PTSD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침습적 반추를 줄여서 PTSD 증상을 낮추는 상담 개입으로는 외부 자극과 외상적 기억(내부 자극), 두 가지 자극에 집중하는 ‘이중 주의 자극’을 통해 인지적 변화와 각성을 감소시키는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요법(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김대호, 2005; Shapiro, 2001)과 심상재각본 효과(Arntz, 2011; Brewin, 2006; Davey, 1989; 최윤경, 2014), 노출 기반의 인지행동치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PTG 모델에 따르면 외상사건에 대한 침습적 반추를 의도적 반추로 전환하여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개입도 활용 가능하다(Tedeschi, Shakespeare-Finch, Taku, & Calhoun, 2018). 침습적 반추를 의도적 반추로 전환하면 인지 작업을 거쳐 기존 신념을 수정 혹은 재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 심리적인 회복, 나아가 성장에 이르게 된다(Tedeschi et al, 2018). 이러한 전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개입으로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각이나 감정, 사고를 자신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자각시키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전념치료(하진의, 2014), 자기자비 정서조절 전략(현숙자, 2017) 등이 있다.

또한 외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상담적 개입을 할 때, 먼저 내담자 애착의 안정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진의(2013)의 연구에서도 특히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외상 후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만, 과활성화 전략을 보이는 정서조절 모델이 작동해 자신의 고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상

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애착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Allen(2005)은 외상 고통의 치유 과정의 핵심은 안전하고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외상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며 안정애착의 맥락에서 치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내담자의 애착 유형과 안정 수준에 따른 평가로 개별화되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볼 때, 트라우마를 겪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평가의 선행이 요구되며 외상 사건을 겪은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건에 대한 대처 및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유희정, 2015; Seonol-Durak & Ayvasik, 2010; Sheik, 2003; Weiss, 2004) 외상을 겪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외상 후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좁게는 가족과 친구 및 주요한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넓게는 지역 사회,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상실과 충격이 큰 경우 주변 지지체계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과 객관적 지지 수준의 차이가 클 경우 주변의 지지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 이외에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박선정, 2015; 신선영, 정남운, 2012), 애착유형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함께 확인한 본 연구에 서는, 반추 이외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매개변인으로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박선정, 정규석, 2016; 성선진, 이재신, 2000;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 2018; Prado et al, 2004) 외상 사건에서 애착유형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추가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에 따라 연구변인들 간 구조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활스트레스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DSM-IV 진단준거 A에 해당하는 트라우마 사건에 비해 불안애착이 침습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안애착 유형의 내담자가 생활스트레스 사건을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지각하고 있다면 침습적인 반추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대한 사건보다 일상 생활에서 겪는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증상들을 촉발하며(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Brown & Harris, 2012; 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5), 그 결과 부정적 정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역기능적인 상위인지가 작동하여 침습적 반추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하진의, 2013; Brosschot, Pieper, & Thayer, 2005; Ehlers & Clark, 2000). 생활스트레스 사건의 경우 트라우마 사건 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반복적인 노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

보다 반복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생활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높은 PTSD 증상과 낮은 외상 후 성장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이동훈, 김지윤, 이덕희, 강민수 2018, 이수림, 2015; 주혜선, 정희진, 하정, 최선재, 안현의, 2009).

또한, 불안애착 유형의 경우 자신의 안전 및 지원을 중요한 대상과의 과도한 근접성을 모색하며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생활스트레스 사건은 트라우마 사건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에 불안애착이 더욱 침습적인 반추를 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효과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만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집단의 효과크기가 생활스트레스 사건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생활스트레스 사건으로 응답한 집단 보다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전환할 확률이 더 큰 것은, Tedeschi와 Calhoun(2004)이 자신의 기존 도식을 무너뜨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 침습적 반추에서 멈추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식이나 목표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적 반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외상 후 성장 모델의 구조와도 일치한다. 최승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재해, 질병, 사고 등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보다 비교적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트라우마 사건이 기존의 인지적 체계나 도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건으로 인한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를 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사건 초기에는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사고를 통해 다소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반복적인 사고를 통해 적응적이고 성장적인 도식을 재건하도록 돕는다. 이는 내담자들에게 회복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스트레스 대처방식, 새로운 목표, 의미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돕기 위해 내담자들이 구체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제안한 9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서경험을 재평가하거나 경험의 강조를 변화시켜 정서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등이 포함된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의미재구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욱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측정오차를 다루었으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이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기 때문에 반응적이고, 단일 방법에 의한 편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비반응적인 측정 도구를 추가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아동과 청소년 및 대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 특성(예; 연령, 성별, 지역, 수입 등)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통제하거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샘플링이 필요하다. 셋째, 애착유형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매개변인을 확인하거나 상황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어, 추후에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그리고 애착유형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의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과정을 반추가 잘 설명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인애착유형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반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주 호소문제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대호 (200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신경정신의학, 44(2), 147-51.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 김지윤, 이동훈, 김시형 (2018). PTSD 증상의 조건비율에 근거한 한국 성인의 트라우마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사회문제, 24(3), 365-383.
-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0), 71-94.
- 박선정, 정규석 (2016). 부모상실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가족탄력성, 의도적 반추,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115-140.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a).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78-816.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b).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성선진, 이재신 (2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2(0), 53-70.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0), 241-269.
-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외상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75-197.
- 양수진, 이정윤 (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자기자비,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증상들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0(2), 43-59.
- 유희정 (2015). 사별 경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2), 323-339.
- 윤명숙, 김남희 (2013). 대학생의 상실경험과 대학생활 적응 관계에 대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60-89.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3), 303-310.
- 이동훈, 김시형, 이수연, 최수정 (2018).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371-395.
- 이동훈, 김지윤, 이덕희, 강민수 (2018). DSM 진단기준과 대인 및 비대인 외상사건에 따른 성인의 PTSD 증상,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41-773.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수림 (2015).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9(0), 93-124.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63-72.
- 이현수 (2008). *긍정적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전경구, 김교현 (1991).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37-158.
- 주혜선, 정희진, 하정, 최선재, 안현의. (2009).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 양상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454-455.
- 최승미 (2008).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2014). 유사외상 상황에서 양측성 안구운동, 심상노출 및 심상재각본이 침습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4(2), 165-190.
- 하진의 (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433-3452.
- 하진의 (2014).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4(0), 175-210.
- 현숙자 (2017). 대학생의 역경후성장 모형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8(1), 183-210.
- Ainsworth, M.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 932-937.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rntz, A. (2011). Imagery rescripting for personality disorder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8(4), 466-481.
- Besser, A., & Neria, Y. (2010). The effects of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ivilians exposed to the 2009 Israel - Gaza war: A follow-up Cross-Lagged panel design study. *Journal of*

- Research in Personality*, 44(3), 335-341.
- Besser, A., & Neria, Y. (2012). When home isn't a safe haven: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s among Israeli evacuees under missile threa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1), 34-46.
- Blackburn, L., & Owens, G. P. (2016). Rumination,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among veterans of Iraq and Afghanista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2), 197-209.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Schilling, E. A. (1989). Effects of daily stress on neg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808-818.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ewin, C. R. (2006). Understanding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retrieval competition accou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6), 765-784.
- Briere, J. N., & Scott, C. (2014).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DSM-5 update)*. Sage Publications.
- Brown, G. W., & Harris, T. (2012).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Routledge.
- Brosschot, J. F., Pieper, S., & Thayer, J. F. (2005). Expanding stress theory: Prolonged activation and perseverative cognition. *Psychoneuroendocrinology*, 30(10), 1043-1049.
- Byrne, B. M. (2004). Testing for multigroup invariance using AMOS graphics: A road less travel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1(2), 272-300.
-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0).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Sociocultural considerations*. In T. Weiss & R. Berger (Eds.), *Posttraumatic growth and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Lessons learned from around the globe* (pp. 1-14).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1). *Posttraumatic growth: The positive lessons of loss*. In R. A. Neimeyer (Ed.),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pp. 157-17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s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10-531.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 Solomon, D. T. (2010).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s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3), 151-166.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arpenter, K. M., Fowler, J. M., Maxwell, G. L., & Andersen, B. L. (2010). Direct and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mong gynecologic cancer survivor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9(1), 79-90.
- Chemtob, C. M., & Carlson, J. G. (2004). Psychological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3), 209-226.
- Cheung, M. W. (2007). Comparison of approaches to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227-246.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 Syme, S. L.(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Cohen, O., & Katz, M. (2015). Grief and growth of bereaved siblings as related to attachment style and flexibility. *Death Studies*, 39(3), 158-164.
- Copeland, W. E., Keeler, G., Angold, A., & Costello, E. J. (2007).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4(5), 577-584.
- Davey, G. C. (1989). UCS revaluation and conditioning models of acquired fea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5), 521-528.
- Davis, D., Shaver, P. R., & Vernon, M. L. (2003). Phys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to breaking up: The roles of gender, age, emotional involvement, and attachment sty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7), 871-884.
- Dekel, R. (2007). Posttraumatic distress and growth among wives of prisoners of war: The contribution of husban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wives' own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3), 419-426.
- Diamond, L. M., Hicks, A. M., & Otter-Henderson, K. D. (2008). Every time you go away: Changes in affect, behavior, and physiology associated with travel-related separations from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2), 385-403.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Elwood, L. S., & Williams, N. L. (2007). PTSD - related cognitions and romantic attachment style as moderators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victims of interpersonal traum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10), 1189-1209.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inkelhor, D., Ormrod, R., Turner, H., & Hamby, S. L. (2005).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y. *Child Maltreatment*, 10(1), 5-25.

- Foa, E. B., Keane, T. M., Friedman, M. J., & Cohen, J. A. (Eds.). (2008). *Effective Treatments for PTSD: practice guideline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New York: Guilford Press.
- Frazier, P., Anders, S., Perera, S., Tomich, P., Tennen, H., Park, C., & Tashiro, T. (2009). Traumatic even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450-460.
- Gallagher, H. C., Richardson, J., Forbes, D., Harms, L., Gibbs, L., Alkemade, N., MacDougall, C., Waters, E., Block, K., Lusher, D., Baker, E., & Bryant R. A. (2016). Mental health following separation in a disaster: The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1), 56-64.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old, S. D., Marx, B. P., Soler-Baillo, J. M., & Sloan, D. M. (2005). Is life stress more traumatic than traumatic str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6), 687-698.
- Goodman, L. A., Corcoran, C., Turner, K., Yuan, N., & Green, B. L. (1998). Assessing traumatic event exposure: General issues and preliminary findings for the Stressful Life Events Screening Questionnair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1*(3), 521-542.
- Granqvist, P., Mikulincer, M., Gewirtz, V., & Shaver, P. R. (2012). Experimental findings on god as an attachment figure: Normative processes and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804-818.
- Janoff-Bulman, R. (2010). *Shattered assumptions*. Simon and Schuster.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lley, L. P., Weathers, F. W., McDevitt Murphy, M. E., Eakin, D. E., & Flood, A. M. (2009). A comparison of PTSD symptom patterns in three types of civilian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2*(3), 227-235.
- Kilmer, R. P. (2006).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Psychology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ional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7), 770-779.
- Long, M. E., Elhai, J. D., Schweinle, A., Gray, M. J., Grubaugh, A. L., & Frueh, B. C. (2008).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diagnostic rates and symptom severity between Criterion A1 and non-Criterion A1 stresso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7), 1255-1263.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 Marshall, T. C., Bejanyan, K., & Ferenczi, N. (2013).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 growth following romantic breakups: The mediating roles of distress, rumination, and tendency to rebound. *PLoS one*, 8(9), e75161.
- McElheran, M., Briscoe-Smith, A., Khaylis, A., Westrup, D., Hayward, C., & Gore-Felton, C. (2012). A conceptual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aftermath of sexual abuse.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5(1), 73-82
- McCullough, M. E., Root, L. M., & Cohen, A. D. (2006). Writing about the benefits of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facilitates forg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887-897.
- Michael, S. T., & Snyder, C. R. (2005). Getting unstuck: The roles of hope, finding meaning, and rumination in the adjustment to berea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9(5), 435-458.
- Mikulincer, M., Horesh, N., Eilati, I., & Kotler, M.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mental health in extreme life-endangering condi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5), 831-842.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0), 53-152.
- Mikulincer, M., Shaver, P. R., & Horesh, N. (2006). Attachment bases of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adjustment. In D. K. Snyder, J. A.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77-9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l, S. S., Arntz, A., Metsemakers, J. F., Dinant, G. J., Vilters-van Montfort, P. A., & Knottnerus, J. A. (2005).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non-traumatic events: Evidence from an open population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6), 494-499.
- Murphy, M. C., & Archer, J. (1996). Stressors on the college campus: A comparison of 1985-1993.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20-28.
- Nelson Goff, B. S., Summers, K., Hartman, K., Billings, A., Chevalier, M., Hermes, A. H., Perkins, D., Walker, L., Wick, S., & Monk, J. K. (2015). Disclosure of war deployment experiences: A qualit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impact on military couples. *Military Behavioral Health*, 3(3), 190-198.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rado, G., Feaster, D. J., Schwartz, S. J., Pratt, I. A., Smith, L., & Szapocznik, J. (2004). Religious involvement, coping,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HIV-seropositive African American mothers. *AIDS and Behavior*, 8(3), 221-235.
- Robinson, J. S., & Larson, C. (2010). Are traumatic events necessary to elicit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71-7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Scott, M. J., & Stradling, S. G. (1994).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out the traum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71-74.
- Senol-Durak, E., & Ayvasik, H. B.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mong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ption of the event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7(2), 150-158.
- Shapiro, F. (2001).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Basic principles, protocols and procedure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heikh, A. I. (2003). *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Cop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5), 428-444.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Expert companions: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291-310). Mahwah, NJ: Erlbaum.

- Tedeschi, R. G., Shakespeare-Finch, J., Taku, K., & Calhoun, L. G. (2018). *Posttraumatic growth: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Routledge.
- Thoits, P. A. (1996). Managing the emotions of others. *Symbolic Interaction*, 19(2), 85-109.
- Thornton, A. A., & Perez, M.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prostate cancer survivors and their partners. *Psycho-Oncology: Journal of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Cancer*, 15(4), 285-296.
- Triple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410.
- Ullman, S. E., Relyea, M., Peter-Hagene, L., & Vasquez, A. L. (2013). Trauma histories, substance use coping, PTSD, and problem substance use among sexual assault victims. *Addictive Behaviors*, 38(6), 2219-2223.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2, 168-189.
-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65-80.
- Weiss, T. (2004). Correlat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husbands of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13(4), 260-268.
- Well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 Willard, V. W., Long, A., & Phipps, S. (2016). Life stress versus 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life event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erious illn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8(1), 63-71.
- Yu, W., He, L., Xu, W., Wang, J., & Prigerson, H. G. (2016). How do attachment dimensions affect bereavement adjustment? A mediation model of continuing bonds. *Psychiatry Research*, 238(0), 93-99.
- Zhou, X., Wu, X., An, Y., & Chen, J. (2014). The roles of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ore belief challenge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 survivors after the Wenchuan earthquake. *Acta Psychologica Sinica*, 46(10), 1509-1520.
- Zimbardo, P. G., & Weber, A. L. (1997). *Psychology* (2nd ed.). New York: Longman.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 고 접 수 일 : 2018. 08.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1. 09

게 재 결 정 일 : 2019. 02. 19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Type, Perceived Social Support, PTSD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ollege Students with Traumatic Experiences: The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SiHyeong Kim

EunBi Kwon

Dong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rumination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PTG) in 728 Korean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or stressful events. In addition, differences between event type (traumatic versus life stress) were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ngle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PTSD symptoms, and PTG. Moreover,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d PTG. Finally, the effect of anxiety attachment on intrusive rumination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life stress event group than in the traumatic event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Posttraumatic Growth(PTG), Attachment, Rumination, Social Support*